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산업구조 대전환 ·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 ·
동서남북을 잇는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산업의 중심지’
경북의 재도약, 이재명은 합니다!

- 이재명,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산업의 중심지, 경북의 재도약”을 만들기 위한 7대 공약 발표

경북 발전 7대 공약

- ①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 ② 구미-포항 연계 이차전지·소재산업 벨트 구축
- ③ 글로벌 백신·의료산업 벨트 조성
- ④ 경북 동남권 과학기술 중심 신산업생태계 조성
- ⑤ 동서남북을 잇는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 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울릉공항 성공적 추진
- ⑦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산업의 중심지, 경북의 재도약”을 만들기 위한 7대 공약 발표했다.

이 후보는 산업구조 대전환·미래형 첨단산업 육성·동서남북을 잇는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주요 목표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구미~포항 연계 이차전지·소재산업 벨트 구축 ▲글로벌 백신·의료산업 벨트 조성 ▲경북 동남권 과학기술 중심 신산업생태계 조성 ▲동서남북을 잇는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울릉

공항 성공적 추진 ▲육군사관학교를 안동으로 이전하는 등 경북의 재도약을 위한 7대 공약을 역설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경상북도 정책 공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를 조성해 입주기업의 초기 투자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구미 로봇직업혁신센터와 자동차 연구소 등을 연계해 전문기술인력 확보 및 기존 종사자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물과 미생물을 활용한 화이트바이오 섬유산업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경북을 이차전지·소재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구미~포항 연계 이차전지·소재산업 라인을 구축하고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협약’이 국가산업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홍준표 전 대표의 공약을 받아 구미공단 스마트재구조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글로벌 백신·의료산업 벨트 조성”을 위해

▲경북(안동)에 ‘백신 첨단투자지구’ 및 ‘백신규제자유특구’ 등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백신 등 바이오 기업들이 경북에 모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경북 동남권에 과학기술 중심의 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포항의 3세대, 4세대 방사광가속기와 경주의 양성자가속기를 첨단과학기술산업에 활용함으로써 경북을 첨단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동남권 지역에 ‘첨단과학기술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경주 양성자가속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고 ▲홍준표 전 대표의 공약을 받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수소산업이 포항의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동서남북을 잇는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문경~김천 내륙철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2028년 완공 목표인 남부내륙철도사업(수서~김천~거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KTX 구미역을 신설해 침체된 구미국가산단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불씨를 마련하고 ▲구미와 통합신공항을 연계해 기업들이 항공 수출 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반영 추진 ▲남북 6축 고속도로 중 영천~봉화 구간 단계적 추진 등으로 경북의 지역 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여섯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울릉공항 성공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선(서대구~신공항~의성)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며 ▲구미역~신공항~포항의 통합신공항철도 중 1차로 구미역~의성구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개항 예정인 울릉도 공항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곱째, 육군사관학교를 안동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가 서울에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안동에는 약 40만평 규모의 구 36사단 부지가 있으므로,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한다면 안동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북의 노후화된 산업시설을 미래형으로 대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낙후된 교통입지를 개선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침체된 경북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일은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보수정권이 못 했던 일을 실적과 성과로 증명해 온 자신이 경북을 재도약 시키겠다고 밝혔다.(끝)